

‘메타버스 조선대병원’ 내달 문 연다

국내·외 환자 내원 전 가상세계로 병원·의료서비스 체험 양질 정보 제공 등 세계 선도 스마트 의료기관 도약 기대

조선대학교병원이 메타버스 운영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의료 기관으로 도약한다.

27일 조선대병원에서 따르면 최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주)넬토이드와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병원 실측을 그대로 메타버스 내로 구현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현실의 병원과 가상 세계의 병원이 연결되는 체험도 진행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한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8월 (주)넬토이드(대표이사 김요섭)와 의료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공동의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제작하고 있는 ‘메타버스 조선대학교병원’은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기 전 미리 가상세계로 병원을 경험하고 의료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광

주 의료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광주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약점을 메타버스를 통해 극복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설명회’를 갖고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메타버스 조선대병원’을 내달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메타버스 조선대학교병원’은 디자인 작업 및 콘텐츠 추가 등 마지막 단계를 거쳐 우선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께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김경중 조선대병원장은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병원을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타버스 병원 구축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메타버스 조선대

교병원 운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이용,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의료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국내 최초 대학병원 디지털 트윈 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위한 프로세스 메타버스 내 실행 ▲외국인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소통 채널 확대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복기자



화순전남대병원 ‘희귀질환 환아들 완치’ 잔치

32명에게 완치 메달 및 장학금 전달

“완치 판정 받아서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론 재발되지 다시 치료를 받으면 어찌 남과 동생이 모두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만큼 이 또한 이겨내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학교생활 하고 싶습니다.”

4년 간의 투병 끝에 백혈병 완치판정을 받은 전모(17)군의 이야기다.

27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앞에서 소아암·백혈병 등 희귀질환 환아들의 완치를 기념하는 잔치를 열었다. <사진>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주관해 열렸으며, 국훈 소아청소년과 교수, 백희조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의료진들과 (사)기부천사 김정주 대표,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김봉학 사무국장, (사)한

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정옥 센터장 등도 참석해 완치 환아들을 함께 축하했다.

완치메달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아이들과 올해 치료를 마친 아이 등 총 32명에게 전달됐다. 또 (사)기부천사와 (사)사랑을 맺는 해트리 단체에서 장학금도 전달했으며, ‘꿈으로 만드는 희망 백일장’에서 당선된 환아들에게 상장 및 기념품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백희조 교수는 “긴 치료를 받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마음고생이 많았고, 특히 치료 종료까지 마음 졸이던 부모님들께서 그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셨다”며 “이제 마음 편안히 일상을 누리며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후 소아암·백혈병·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을 치료하고 있다. /오복기자

조선대병원,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 개척 ‘박차’

일주일간 사우디 방문...광주 의료관광 등 홍보

조선대병원이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조선대병원은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의료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자 광주시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사우디의 수교가 50주년 되는 해로 의미를 더한다. 지난 1972년 공식 수교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양국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사우디 2030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100여명의 의료진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중동 의사연수 협력 의료기관’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중동 의료진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조선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중동클리닉을 개소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방 등 중동국가의 환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된 진료시스템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사우디 방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대병원은 김경중 병원장, 최지운 대외협력실장(이비인후과 교수) 등 4명을 파견했고 광주시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광주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가졌다.

방문단은 사우디 보건국 및 대한민국 대사관, Qassim University & University Hospital(카심 대학교 & 대학병원), Sultan Bin Abdulaziz Humanitarian City(술탄 빈 압둘라지즈 휴머니타리안 시티), Dr. Sulaiman Al Habib Hospital(닥터 술라이만 알 하비브 병원) 등을 찾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의사연수, 상호 협력 및 교류 등에 대한 업무협약은 추후 논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대병원 최지운 대외협력실장은 Qassim University & King Fahad Hospital 교수 및 의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코칭형술 및 비백혈병 환아의 분류 가이드’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오복기자

전남대병원, 방사성의약품 GMP 재인증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생산허가 등도 합격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분자영상신약개발센터(사이클로트론실)가 방사성의약품 제조 등에 대해 국내 의약품 생산관리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 의약품 GMP는 의약품 생산공정에 대한 품질 인증 절차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3년마다 생산시설

별로 GMP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그간 방사성의약품은 GMP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2014년 식약처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하면서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돼 GMP 적합 판정 없이 방사성의약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2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분자영상신약개발센터는 지난 201

9년 11월16일 최초 GMP 적합 승인을 받은 후 재인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끝에 최근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재인증으로 전남대병원 분자영상신약개발센터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3년 동안 GMP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핵의학과 송호천 교수(방사성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전남대병원에서 효능,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함에 따라 광

주·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소재 병원까지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의 많은 환자들도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전남대병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선분야 정기검사(방사선규제PM-22) 결과 지난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및 생산허가, 운반 정기검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정훈 방사선안전관리자(핵의학과)는 “앞으로 더 안전하게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방사선 안전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광주기독병원, MRI 3.0T 추가도입

광주기독병원은 27일 “최근 MRI통합 조정실에서 MRI 3.0T 장비를 추가도입했다”고 밝혔다.

MRI 3.0T는 검사시간이 2배 단축되면서도 초정밀,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고

넓은 검사 출입구와 짧은 시스템 길이, 소음 축소 등 환자의 경험 개선을 위한 편안한 검사 환경을 구현하는 환자 친화적 최첨단 프리미엄 영상진단장비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필립스사의 인제

니아 3.0T CX 시스템은 신경 및 근골격계 등 기존에 MRI가 많이 쓰이던 분야 외에도, MRI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복부와 심장 등 보다 광범위한 인체 부위에서 선명한 진단 영상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한 dSync(디싱크) 체제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정밀도도 더욱 향상됐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이번 MRI 3.0T 추가도입으로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광주기독병원의 모든 진료영역에서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만큼 지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p>후지의료기 PFC-7900</p> <p>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p>	<p>후지의료기 JP-870</p> <p>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기기인증</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p>	<p>사파엘스케어 SF-5100</p> <p>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엘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SP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p>	<p>사파엘스케어 SF-5000</p> <p>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p>
---	---	--	---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